

1인창조기업 전문웹진

Change2011

“ 2011,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

Vol.10

2011년 01월호

CONTENTS

구본형의 변화사상 시처럼 산다

3



[단군 프로젝트]

“숲 학교의 꿈을 세밀화에 담아” 이효은님 인터뷰
변화에의 간절함이 새벽을 일깨워

4

직장인을 위한 필살기 창조 프로젝트

4단계 : 나의 직업적 유토피아 발굴하기

능력 + 열정 + 트렌트 = 독보적인 프로

6

[사자 프로젝트] 카페탐험대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1
언젠가는 피어날 꽃들을 위해

8

인문학 놀이터

성찰, 내면으로의 모험

10 삶에 겨울이 찾아올 때

시 읽어주는 여자

12 새해 아침에 / 이해인

루린, 너와 나 사이의 풍경

14 051. 낮잠 P.M.03:51
052. 일년 내내 비 P.M.04:40



시처럼 산다

그 날은 이상한 날이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공연을 하나 보았다. 그리고 집에 와서 포도주를 마셨다. 우리는 조금씩 취했다. 그때 눈이 내렸다. 이윽고 펄펄 쏟아진다. 나는 언젠가 내가 찾아갔던 강연회 이야기를 했다. 그 강연회에서 들은 것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단 하나의 내용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등이 굽어 있었다. 슬픔이 눈물로 흘러 내려 등에 고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슬픔이 눈물로 고여 낙타의 혹처럼 등이 굽었구나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엾다 여겼다. 우연찮게 그 비유가 내 가슴에 안겨들었다.' 내 이야기를 듣자 내 앞에 앉아 있던 그가 일어나더니 등 굽은 여인의 흉내를 내며 몇발자국을 걸었다. '봐라. 등이 굽으면 땅 밖에 볼 수가 없다. 별을 볼 수가 없어. 등을 펴야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게 등을 펴고 하늘을 볼 것을 권했다.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온 그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닦았고 포교에 성공했다. 그리하여 술김에 나는 1월 초에 영세를 받기로 했다. 내 안에 술이 있었기에 주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밤 눈이 쉬지 않고 내려 천지가 온통 하얗게 변했다. 길이 미끄러워 차로 그를 데려다 주지 못했다. 우리는 미끄러운 고갯길을 걸어 내려가며 강아지처럼 흥겨워했다. 언젠가 노래하고 춤을 추던 마이클 잭슨이 이런 말을 했었다. '춤을 출 때 어떤 힘이, 영적인 어떤 힘이 내 안으로 깃드는 것을 느낀다. 그 순간 내 영혼은 더 할 나위 없이 고양되어 나는 우주와 하나가 된다. 별도 되고 달도 된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가 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승리자가 되는가하면 무언가에 정복당한 존재가 된다. 노래하는 존재이자 그가 부르는 노래 자체가 된다. 이해하는 사람이면서 이해 받는 자가 되곤한다' 황홀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눈길을 잠시 걸었다.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사람은 새로운 운명을 찾아 나서게 마련이다. 시시한 변호사였던 간디가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게 되는 전기는 마리츠버그의 역에서 텅텅 펄펄 지새운 하룻밤 사이에 마련되었다. 마리츠버그역의 우연은 간디 한 사람에게만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준비가 된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알려주는

신비한 고지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연이 운명이 되는 이야기는 그동안 문학이 다루어 온 흔하고도 멋진 만남의 방식이었듯이 우리 역시 현실 속에서 운명적 우연을 겪게 된다. 우리는 그 우연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홀연 깨닫게 된다. 이런 우연들은 거듭된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높이 뛰어 오르게 된다. 우연이 그저 우연으로 끝나고 마는 무수한 버림의 과정을 지나 우연이 운명이 될 때의 조건은 단 하나, '바로 때가 무르익어 감이 떨어지듯' 우연은 필연이 된다.

어떤 사람은 큰 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별이 된다. 크고 작은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못한다. 감동적인 것은 사람은 누구나 별이라는 것이다. 내 등이 굽어 있을 때, 나는 땅 위에 있는 것들 밖에는 보지 못했었다. 내 시야가 닿는 좁은 땅, 그것이 내 정신적 우주였다. 문득 등을 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내 안에 신을 믿게 되었다.

시처럼 살고 싶다. 삶이 맑은 물 속의 작은 고기떼처럼 그 유쾌한 활력으로 가득 차기를 얼마나 바라왔던가. 삶이라는 대지 위를 내 인생은 여러 개의 시로 여울져 흐른다. 날쎈 고기처럼 도약하고, 깊고 푸른 물빛으로 잠복하고, 햇빛 쏟아지는 황홀로 새처럼 지저귀며 흐른다. 때로는 봄꽃을 실어 나르고, 때로는 폭우 뒤의 격동으로 몸부림친다. 이내 거울 같은 평화 위에 하늘과 나무 그림자를 실어 나르고 마침내 바다로 흘러들어 우주 속으로 사라진다. 그때 삶은 작은 강처럼 기쁨으로 흐르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시를 하나 지었다.

가득 채워졌던 젊음은 한 번도 젊은 적 없이 비어가고
인생을 다 뒤져도 나는 없어. 살아보지도 못하고 다
사라지기 전에 얼른 이 코너를 돌아야겠어. 검은
깍지를 깨뜨리고 꽃이 터지는 것을 보아야겠어.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아설 때 벽으로 막혔던 햇빛이
쏟아지듯, 나를 덮치고

나의 황홀은 꽃이 되었어. 우주에 한 걸음 다가서자
우주는 선뜻 내게 열 걸음 다가와 주었어.

나를 기다린거야, 나보다 더한 그리움으로



“변화에의 간절함이 새벽을 일깨워”

숲 학교의 꿈을 세밀화에 담아 - 이효은님 인터뷰

■ 수희향

Q1. 단군의 후에 모집 공고를 보았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나요?

연구소의 필살기 과정 중에도 사실 새벽 기상이 있었지만, 그 때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찾은 필살기를 새벽 수련 시간을 통해 꼭 연마하고 싶었습니다.

Q2. 단군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새벽에 기상하여 4시부터 7시까지 온전히 집중하여 저의 필살기인 세밀화 하나를 완성했을 때, 그 때가 가장 뿌듯하고 기뻐던 것 같습니다.

Q3. 단군 프로젝트에서 새벽 기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알람시계입니다 (웃음).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을 때가 많아서, 알람 시계가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상 생활에서 변화를 일깨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의 위기감이라고 할까.. 그런데서 오는 변화에의 간절함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Q4. 단군 프로젝트를 통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사실 전 제 스스로 제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저희 부족 아침 문을 열면서 제가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웃음).

다음으로 스케치북 한 권을 세밀화로 다 채웠는데, 그 역시도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Q5. 경험으로 볼 때 새벽 기상 습관화는 10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새벽 기상 자체는 충실이란 한다면 10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6. 100일 이후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요?

새벽 수련은 100일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기상 습관화를 토대로, 필살기를 꾸준히 연마해가고자 합니다.

Q7. 단군의 후예는 내게 “...이다”라고 정의한다면..?

단군의 후예는 내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다.”



이 효은님은 현재 유치원을 경영하는 유치원 원장님으로 자신의 필살기인 세밀화를 유치원에 접목하여 숲 학교 운영을 꿈꾸고 있습니다. 단군의 후예 100일차에 이어 200일차를 진행하면서 며칠 전 또 하나 중요한 걸음을 떼놓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만큼이나 아름다운 세밀화에 생명이 더해져 숲 학교라는 한층 더 영롱한 현실로 빛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4단계 : 나의 직업적 유토피아 발굴하기

■ 홍 승 완

필살기 4단계의 백미는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EREC(Elimination, Reduction, Enthusiasm, Creation)’의 중심에 위치한 ‘나의 직업적 유토피아(My Job Utopia)’를 창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과 잘 어울리는 천직을 그려나가는 작업이 4단계의 화룡정점이다. 창조적으로 천직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능력, 열정, 트렌드이다. 지금부터 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는 능력이다. 즉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첫 번째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자신의 기질적 특성과 재능을 치열하게 찾아 계발한 사람만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스로에게 ‘나의 핵심역량을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그리고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 회사에서 주어진 태스크에 갇히지 말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탐색하고 확장해나가야 한다. 또한 자신이 가진 몇 가지 재능을 긴밀하게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방법도 좋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유력한 직업적 유토피아 후보이다.

둘째는 열정이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즉 취향, 선호, 그리고 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적 유토피아에는 기쁨과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재미 없는 일에 빠져드는 사람은 없다. 팔살기가 차별적 전문성을 담은 직업적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서는 재미와 열정을 에너지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열정은 판타지다. ‘살아있음’의 희열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아, 정말 내가 살아있어’라고 내면이 소리칠 때, 우리는 그곳에 참으로 존재한다.

열정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는 분야에서 재능 역시 최고로 발휘된다. 같은 사람이라도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듯, 재능도 분야에 따라 그 위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직업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능력과 열정은 대부분 함께 가는 속성이 있다. ‘하고 싶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으니까 더욱 하고 싶게 된다’는 선순환적인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를 강화하고 돕는 경우가 많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한 화학작용이다. ‘열망하는 것을 잘해낼 때, 그리고 그 살아있음의 기쁨을 지속할 때’ 우리는 어느 날 대가가 되어 있게 된다.

직업적 유토피아를 찾아낼 때 고려해야 할 세 번째 요소는 세상의 트렌드이다. 여기서 트렌드는 ‘유망 직종’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 년간 지속될 세상의 물결, ‘메가트렌드’를 의미한다. 메가트렌드는 보통 30~50년 정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주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메가트렌드는 글로벌해서 세계 어디서든 감지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메가트렌드라 불릴 수 있다. 메가트렌드의 힘은 새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의 깊

이와 넓이에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잘 알려져 있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에 주목하라. 예를 들면 ‘고령화’, ‘새로운 노동의 등장’, ‘로하스(LOHAS)’와 같은 메가트렌드가 개인과 사회 그리고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가트렌드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 그리고 수요와 틈새 시장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사람은 저마다 미래를 보는 관점과 태도가 다르다. 가령 비관주의자의 눈에 미래는 불확실함과 혼란함으로 비칠 것이고, 낙관주의자는 절과 꽃이 흐르는 낙원과 같은 그림으로 미래를 볼 수도 있다.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보는 미래와 진보주의자가 보는 미래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미래를 보는 사고 방식과 정신적 태도를 살펴보자. 그래야 자신의 좁은 관점 또는 선입관에서 벗어나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세상을 기저에 흐르고 있는 메가트렌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탐색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의 직업적 유토피아가 이 시대의 물결을 타고 함께 갈 때 훌륭한 서핑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그 흐름을 거스른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여정을 거칠 수 있다. 그래서 필살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비즈니스이자 직업적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트렌드의 대략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정리해보자. 재능은 잠재력이기 때문에 재능을 찾아 쓰지 못하면 자신의 보물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열정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만나야 타오를 수 있다. 좋아하는 곳에 자신의 재능을 쓸 때 우리는 열정적일 수 있으며, 성과를 낼 수 있다. 한편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세상의 수요와 관심의 물결을 탈 수 없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직업은 존재를 빛나게 해주는 동시에 밥도 제공해야 한다. 우리가 만들려는 필살기는 단순히 기술 하나를 익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완성도 있는 차별적 비즈니스’를 꾸려나갈 수 있는 비전이 담긴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그대는 어떤 이름으로 시장에서 불리고 싶은가? 그 이름이 바로 ‘직업적 유토피아’다. 

* 본 칼럼은 변화경영연구소의 구본형 소장의 저서 <구본형의 필살기>를 홍승완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필살기 교육 프로그램 안내”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에서는 필살기 창조 모델에 따른 두 가지의 직장인 훈련 프로그램(유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단기 프로그램으로 ‘**사자로 사는 법 - 평생직업으로 가는 필살기 창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책임과 의무의 고단한 ‘낙타의 삶’에서 차별적 전문가로 평생 일할 수 있는 ‘사자의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직장인 경력 혁명 프로젝트입니다. 구본형 소장이 정립한 ‘필살기 창조 모델’을 따라 쉽고, 명료하고, 강력하게 접근합니다.
2. 장기 프로그램으로 ‘**필살기 라이선스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은 필살기 창조 모델을 활용하여 본인의 필살기를 익혀가는 체험을 하고, 개별적으로 필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Facilitator)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과정의 참가자들은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됩니다.

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변화경영연구소 홈페이지(www.bhgoo.com)의 ‘프로그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탐험대]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 1

언젠가는 피어날 꽃들을 위해

■ 이 효 정

나에게 두 개의 공간이 있다. 하나는 떠나온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오지 않은 미래다. 한 곳은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었고, 다른 곳은 다시 찾고 싶은 장소였다. 그 곳은 회사이다. 그리고 카페다. 후자 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은 작년 이만 때쯤 시작한 카페 탐험 때문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둘 중 한 곳을 선택하는 일은 특별하지 않은 현실이자 하나의 과정이다. 두 공간은 다르기 때문이다.

경영의 구루 찰스 핸디는 “오늘날의 충성심은 첫째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것이고, 둘째가 자기 팀과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이 회사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이 선택하는 삶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코끼리(회사)’ 시대는 저물고, 바야흐로 ‘벼룩(프리랜서)’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화는 기업 내부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화여대 정재삼 교수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대표적이고 구조적인 환경 변화 가운데 하나로 “기업 조직 구성원의 자기실현 의지”를 꼽았다. 여전히 회사는 “개별적인 야망을 가진 개인”들을 사로잡지 못한 채 뒷짐에 거드름만 피우고 있었다.

내 삶의 최우선이 회사이고, 그 곳에서 하는 일과 보상을 결코 의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더 많은 일과 사람들로 시간을 채우고, 회사가 시키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회사의 미래를 나의 미래로 여겼던 시절. 나의 성공은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며 공든 탑을 쌓아갔다. 하지만 그 기대와 바람이 그림자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눈치채면서 내 속에는 조그만 씨앗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 곳으로 욕망이 흐르자 우선 순위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회사 속 미래는 멀어지고 내가 바라는 나의 미래가 성큼 다가왔다. 삶에 더 많은 의미와 흥미를 안겨 주는 곳, 욕망이 흘러 꽃을 피울 수 있는 곳, 적당한 밀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합일하는 곳, 그 곳으로 나의 마음은 기울어 갔다. 때마침 만난 카페는 나의 미래를 다듬고 키워내는 비옥한 토양이었다.

나는 하나의 공간, 침과 어울림, 나눔과 상상이 함께하는 공간을 생각했다. 카페는 이러한 나의 생각을 확인시켜준 좋은 교본이었다. 그 속에는 집을 나선 사람들, 길을 가는 사람들,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그 모두에게 선물이 되는 자유와 사색, 그리고 공감기가 있었다. 집, 직장, 학교 그 중간 어느 곳에 있으면서 찌뿌듯한 삶에 활력과 열정을 담아주고 있었다. 좁다란 골목에 자리한 카페와 길 모퉁이 10평 카페들은 동네와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은 발전소였고, 그곳에서 꿈



백 고흐가 프랑스 아를에 머물며 그린
'밤의 카페 테라스' (1888)는 카페 탐
험을 하며 다시 보게 된 그림이다. 우
리가 상상하는 카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다

을 만들고, 하고 싶은 일로 먹고 사는 카페지기
들은 '생산 수단을 장악한 혁명가' 였다. 나는
카페를 사랑하게 되었고, 카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카페를 탐험하는 동안 확인한 것이
바로 사람과 공간이었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커피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
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글쓰기 수련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윤태희씨의 '카페가 있는 갤러리' 꿈을 좋아한
다. 단순한 카페를 넘어서는 남다른 목적을 가
지고, 자신의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려는 그녀
의 실험이 좋았다. 내가 바라는 것 역시 사람들
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다. 사람
들 마음 속에 씨앗 하나 심어줄 수 있는 공간
말이다. 그래서 하나의 꽃이 꽃밭 되고, 온 산

을 울긋불긋 물들여 갔으면 좋겠다. 신묘년. 언
젠가는 피어날 꽃들이여, 부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소망하시길.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여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성찰, 내면으로의 모험

■ 홍승완

삶에 겨울이 찾아올 때

회사를 그만둔 지 19개월이 지났다. 직장을 떠난 시점은 2009년 4월이었고, 회사를 나온 이유는 신체와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였다. 회사를 그만두기 전 11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책 3권을 쓴 것이 에너지 방전의 원인이었다. 그렇지만 그 11개월은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란 존재를 치열하게 불태우며 스스로 빛났던 내 삶에서 가장 열정적인 시기였다.

회사를 그만둘 때 걱정이 없지 않았지만 자신감이 더 강했다. 10년 전에 해본 3년 간의 개인 대학 경험이 자신감의 바탕이었고, 조지프 캠벨과 헨리 데이빗 소로우처럼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도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나의 소명과 재능 그리고 핵심가치를 잘 알고 있다는 확신도 있었다. 20대의 캠벨이 우드스톡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소로우가 월든 숲에서 자기 삶을 실험한 것처럼 나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그럴 자신이 있었다. 거기에 맞춰 목표와 계획도 세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예상은 깨졌다. 애초의 계획과 목표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20대 중반의 개인대학 시절이 외부 세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기였다면, 지금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 세계를 탐색해야 하는 시기임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작년에 회사를 그만둘 때만 해도 내게 주어진 인생의 계절은 봄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춥지만 부지런히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려야 할 때라고 믿었다. 봄을 잘 보내면 뜨거운 여름과 풍성한 가을을 보내게 될 거라 생각했다. 19개월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이 시기의 출발점은 봄이 아닌 가을의 끝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계절은 겨울이다. 겨울이 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이 겨울은 내게 너무나 혹독하게 느껴진다.

올해 여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서른 다섯을 사는 동안 올해 여름처럼 길고 힘든 여름은 없었다. 가장 더운 여름에 나의 내면은 찬 바람을 맞으며 추위에 떨어야 했다. 나를 얼어붙게 만든 바람의 이름은 무기력과 무능력 그리고 무가치함이었다. 내 경험으로는 이 세 가지가 겨울과 같은 삶의 특징인 것 같다. 세 가지 중 하나에 시달릴 때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작용하여 괴롭힐 때도 있다.

무기력과 무능력, 그리고 무가치함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먼저, 무기력의 증상은 식욕과 의욕의 감퇴와 자발성 증발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체 및 정신적 에너지의 저하이다. 내게는 이루고 싶은 꿈과 소명이 있었지만 인생의 겨울에서 소명 의식은 바람에 꺼진 촛불처럼 사라졌다. 두 번째로 무능력감은 자신감과 도전 의식의 위축으로 표면화된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갖고 닦은 재능에 대한 믿음 상실이 나를 괴롭혔다. 마지막으로 무가치함, 내게는 이것이가장 위험했다. 나는 지금까지 배운 것과 이론 성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가치 없어 보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감정에 종종 사로 잡혔다. 가슴을 뛰게 했던 것들, 즉 독서와 책쓰기, 강의와 프로그램 기획 등이 무의미한 일처럼 보였다. 여기에 무기력과 무능력감이 더해지면서 나는 점점 위축되었고, 그만큼 내면은 더욱 좁고 어두워졌다.

인생에 겨울이 찾아왔음을 자각했을 때, 이 겨울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여기서 빨리 빠져 나오기 위해 발버둥쳤다. 하지만 허사였다. 그럴수록 내면의 고통은 겨울 밤처럼 더 깊어졌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겨울을 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충실히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놀라운 정신적 전환이었다. 이런 전환을 하는 데 도움을 준 책이 있다. 파커 J. 파머가 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가 바로 그 책이다. 파머는 “뒤에서 길이 닫히는 것에는 우리 앞에서 길이 열리는 것만큼이나 많은 교훈이 들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길이 닫힐 때면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해야 한다.
길이 열릴 때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가능성에 화답해야 한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래서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이제는 길이 닫혔음을 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은 모습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내 안의 어둠과 약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 안에 빛과 어둠, 재능과 단점,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이해한다. 그리고 이 모순을

수용하는 것이 온전한 존재로 성장하는 첫 걸음이라 믿고 있다. 겨울을 겪지 않았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겨울은 내 옷을 벗기고, 현재의 나란 존재의 바닥을 보여주었다. 파머의 말이 맞았다.

“겨울에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름의 푸르름이 시야를 가로막던 것과 달리, 한 그루씩 또는 한꺼번에 나무들의 또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그들이 뿌리내린 땅을 볼 수 있다. (...) 겨울은 눈앞의 풍경을 깨끗이 치워준다. 혹독하긴 하지만,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서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 우리 존재의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삶의 겨울은 존재의 바닥을 보여준다
그 바닥에 겨울이 품은 선물이 있다**

나를 미치게 할 뻔한 겨울은 가장 힘든 계절이지만, 귀한 선물을 선사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는 겨울을 빠져 나왔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내가 겨울 속으로 충분히 들어갔는지가 중요하다. 이 겨울을 충실히 겪는다면, 언젠가 내게도 길이 열릴 것이다. 겨울 속에서 제대로 단련한다면, 그리고 겨울이 준 선물을 온전히 내재화한다면 그 가능성에 화답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읽어주는 여자

■ 이 은 미

새해 아침에 / 이해인

창문을 열고
밤새 내건 흰 눈을 바라볼 때의
그 순결한 설레임으로
사랑아
새해 아침에도
나는 제일 먼저
네가 보고 싶다
늘 함께 있으면서도
새로이 생긋는 그리움으로
네가 보고 싶다
새해에도 너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나고
가장 정직한 시를 쓰고
가장 뜨거운 기도를 바치겠다

내가 어둡이어도
빛으로 오는 사랑아
말은 필요 없어
내 손목을 잡고 가는 눈부신 사랑아
겨울에도 돌아나는
내 가슴 속 푸른 잔디 위에
노란 먼들레 한 송이로
네가 앉아 웃고 있다

날마다 나의 깊은 잠을
꿈으로 깨우는 아늑다운 사랑아
세상에 너 없이는
희망도 없다
새해도 없다

내 영혼 나비처럼
네 안에서 접힐 때
나의 새해는 비로소
색동의 설빔을 차려 입는다
내 묵은 날들의 슬픔도
새 연두 저고리에

자춧빛 끝동을 닦다
아늑다운 사랑아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해인 수녀님의 글을 올립니다.

새해를 위하여 새 달력을 걸며 나의 기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조용히 ‘견디어 내는 힘’을 주십사 기도합니다. 힘든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 닥쳐 수시로 숨이 찰지라도 침착하게 그 태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길을 찾아 방황하게 될 때에도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고 욕심의 키를 낮추어 좀 더 겸손한 마음, 오롯한 마음으로 삶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대, 올 한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해에는 내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루린. 너와 나 사이의 풍경

051_낯장_P.M.03:51

300





Change 2010을 만드는 사람들

필진 : 구본형

홍승완 :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
경영 콘텐츠 전문가
저서 : 나의 방식으로 세상을 여는 법, 내 인생의 첫 책쓰기

수희향 :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
외서 번역가
Change2010 & 단군의 후예들 기획자

이효정 : 미래경영 writer
시간과 공간 탐험가
사람을 효율과 효과적 자원으로만 활용하는 궁색한 조직을 위해 공부하는 중

이은미 :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
Change2010 & 단군의 후예들 마케팅
공저 : 회사가 나를 미치게 할 때

김도윤 :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 연구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기획자
영감 건축가

기획 : 수희향/ 홍승완

편집 : 창

마케팅 : 이은미

콘텐츠 디자인 : 황승희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 신종윤

발행 : AL 문화기획